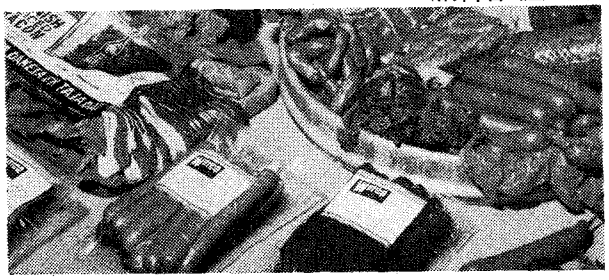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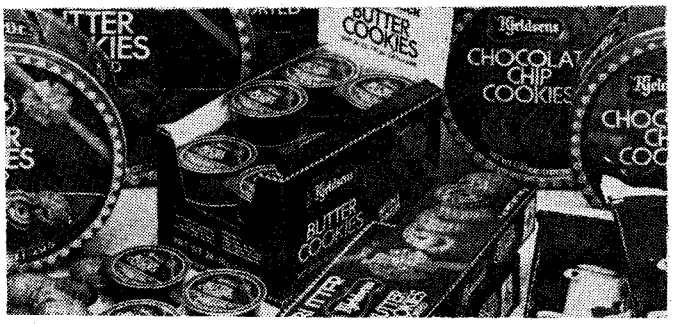
□ 特輯 □

加工食品의 輸入自由化,

70年代末부터 加工食品이 輸入自由化의 물결을 타고 하나 둘씩 수입되기 시작하여 '83년에는 껌, 비스켓 등 大衆多消費 品目의 輸入門戶가 열리면서 食品業界를 긴장시키더니 급기야는 40여종의 많은 加工食品이 업계의 豫測과는 달리 금년 하반기부터 年次的으로 早期 輸入自由化됨에 따라 식품업계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本誌에서는 가공식품의 輸入開放이 業界에 미치는 影響과 수입품과 맞설 수 있는 그 對應策은 무엇이며, 과연 現實的인지, 學界와 業界의 意見을 들어 본다. ……〈編輯者 註〉





① 學　界／食品產業의 先進化에 拍車를／李瑞來

② 業　界

菓子類／輸入自由化는 漸進的으로 推進돼야／南正植

마아가린／原料輸入關稅率은 先進國水準으로／徐聖勳

肉加工品／政策次元의 原料需給이 必要／安泰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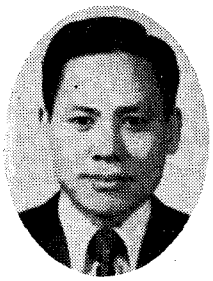
마요네즈／原料묶어 놓은 製品開放은 矛盾이다／元龍南

③ 協　會／輸入自由化現況과 向後對策／金永漢

과연 現実的인가!

① 學 界

食品産業의 先進化에 拍車를



李 瑞 來
〈梨花女大 敎授〉

1. 머릿말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經濟발전과 都市化에 따라 食生活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더우기 農耕社會로 부터 産業社會로 전환됨에 따라 加工食品에 대한 選好度와 必要性이 높아 졌고 食品産業도 量과 質的인 면에서 先進化를 강요당하고 있다.

政府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國際市場의 隊列에 참여키 위하여 貿易自由化의 정책을 내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加工食品에 대해서도 금년 下半期부터 年次的으로 輸入自由化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의 加工技術水準에 따라 '84년에는 22개품목을, '85년에는 33개품목을, 그리고 '86년에는 31개품목을 지정하여 모두 86개품목에 이르는 加工食品에 대하여 門戶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産業도 先進隊列에 한몫 끼어 國際競爭을 해야겠다는 굳은 意志와 우리가 언제인가는 달성해야 할 높은 目標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은 가슴이 부풀고 있다.

한편 産業界의 입장을 보면 食品市場에서의 販賣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는 요즈음 輸入開放의 확대에 따라 또 다른 막강한 競爭者를 가지게 되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경쟁에 나서야 하는 食品企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희망보다는 걱정을 더 하게 되니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對處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衆智를 모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 食品에 관심을 가지는 科學者, 技術者, 行政家 그리고 經營者는 모두 合心하여 輸入自由化로의 移行을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이고 食品産業의 先進化에 拍車를 가해야 될 것이다.

2. 食生活의 方向

한 국민의 食習慣은 그 나라의 國民所得과 아울러 社會·文化的 관습에 따라 형성되어 간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食生活은 生存단계에서 選擇단계로, 그 다음은 食道樂의 境地

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식품의 形態는 天然食品에서 加工食品으로 바뀌고 그 다음은 流行食品(건강식품, 자연식품, 美容식품 등)을 갈구하게 된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加工食品이 차지하는 비율은 近代化를 한참 부르짖던 '70년초만 해도 13%에 불과했으나 '80년에는 33%로 올라섰다. 이러한 비율은 '50년대 미국의 80%, '70년대 일본의 50%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食生活이 나아가는 방향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본을 좇아간 다음 궁극적으로는 西歐式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를 想定하는 이유는 우리의 文化的 배경과 經濟발전의 방향이 현실적으로 그쪽을 指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加工食品을 먹으려면 天然食品의 경우보다 2배의 食料品費가 들어간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加工食品이 가지는 便宜性, 貯藏性, 多樣性 등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代價를 치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家計費와 加工食品費 사이에 높은 正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확인할 때 自明해진다.

3. 食品產業의 現況과 문제점

국민경제면에서 食品產業이 가지는 役割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 소비자의 食生活 慾求에 대응하여 多樣性, 便宜性을 가지는 加工食品을 제공한다.

② 食糧資源의 효율적 利用을 도모한다.

③ 식품의 제조 및 서비스를 통한 雇傭기회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 食品產業의 產業上 위치를 보면 附加價値를 기준으로 할 때 1970년까지만 해도 전체 製造業의 20%로 제 1 위를 차지하던 것이 '80년에는 16%로 떨어져 제 4 위가 되었다. 이것은 重化學工業의 育成政策에 의하여 食品工業의 상대적 地位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食品產業만을 보면 '68년부터 경제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여 '75년 이후 年平均 20%의 成長率을 보여 왔고 다른 산업에 비하여 不況에 비교적 강한 體質임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加工食品의 소비량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므로 食品產業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加工食品의 輸入自由化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食品產業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規模의 零細性

1982년 현재 전국의 食品製造加工業所는 27개 業種에 걸쳐 14,541개나 되지만 대다수가 零細하고 中小企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零細性은 제품의 生產性을 낮출 뿐만 아니라 品質의 低下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값싸고 品質좋은 加工食品을 공급하려면 이들 業所의 시설改善과 경영合理化가 절실히 요청된다.

(2) 技術水準의 落後性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을 보면 製粉, 製糖, 調味料 등이 비교적 높은 技術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나 冷凍食品, 濃縮食品, 乳製品, 肉加工品, 便宜食品, 特殊食品 등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그 技術이 아직 先進國水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이들 제품의 生產경험이 아직 적은 동시에 그동안 정부의 技術開發정책이 重化學工業에 치중되어 消費產業으로 간주되어 온 食品工業의 育成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3) 生產性의 低位현상

우리나라 食品工業의 生產性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종업원 1인당 出荷額 비율을 보면 한국 100, 일본 177, 영

국 200, 이태리 290, 서독·프랑스 334, 미국 423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生産性이 낮은 이유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規模의 零細性, 技術水準의 落後性 이외에 낮은 稼動率이 문제되고 있다.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原料需給의 원활화, 適正施設의 유지, 原料저장시설의 확장과 複合加工體制의 강화가 요청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開放經濟下에서 국제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食品加工産業의 生産性 향상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4) 消費者의 不信風潮

加工食品의 최종 평가자는 消費者이다. 소비자의 性向과 購買행위에 의하여 食品企業의 盛衰가 크게 좌우된다. 더우기 家內工業的으로 생산된 加工食品이 범람하였던 時代를 경험한 소비자는 加工食品에 대한 不信이 대단하며 不正食品, 不良食品의 追放운동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따라서 外來商品에 대한 무조건적인 選好度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潛在하고 있다.

최근 食品産業界에서는 技術개발에 대한 意慾이 대단하며 先進技術 導入의 바람이 한참 불고 있다. 그러나 그 底邊에는 진정한 의미의 技術導入 못지않게 消費者를 의식하여 외국 有名商標의 도입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國內企業의 商標도 品質을 保證하고 소비자의 信賴를 받아 외국商品의 도입이 스스로 억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얼마전 국내에 輸入된 離乳食, 菓子類에서 산 경험을 한 바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모든 消費者로 하여금 愛國者가 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근년에 들어와 消費者 보호운동이 일어나면서 企業은 새로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 開放經濟下에서 企業은 소비자의 소리를 重視하고 소비자의 正當한 要求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商品을 生産, 流通시키는 食品企業만이 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5) 食品行政의 多元化

현재 食品의 生産·流通業務, 衛生規制, 技術支援, 金融支援 등의 관련업무가 여러 行政部署에 散在되어 있다. 따라서 食品企業의 입장에서는 重複된 規制와 인접부서간의 不調和에 의하여 필요이상의 負擔感을 느껴 왔고 生産性 향상에 커다란 阻害要因이 되는 동시에 原料 및 製品의 需給計劃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食品原料의 生産分野別로 관장하던 오랫동안의 行政體系는 産業社會로 移行되고 있는 우리의 現實에 맞도록 再整備하여 食品의 生産 및 消費構造를 近代化해야 될 것이다.

4. 맺는말

加工食品의 輸入自由化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의 食品産業은 "零細性—過當경쟁—企業에 대한 소비자의 不信—行政的 規制—支援呼訴"라는 惡循環을 되풀이하여 왔다.

이제는 食品産業도 自立의 터전을 마련하고 國際競爭力을 강화하지 않는 한 先進國 企業에 蠶食당하고 말 것이다.

開放經濟下에서 國際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食品産業의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生産性 提高에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하루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食品産業의 育成, 支援, 規制 업무 전반에 걸친 綜合的인 對策을 計劃, 調整하는 동시에 이를 合理的으로 推進해 나갈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준비없이 事業을 벌릴 때에 派生되는 문제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어리석은 試行錯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② 業界／菓子領

輸入自由化는 漸進的으로 推進돼야

南 正 植
〈롯데製菓(株) 企劃理事〉

1. 業界近況

政府가 지난해 7월 1일자로 國內產業의 開放政策에 의한 大幅的인 輸入自由化를 實施한지 벌써 1年이 지났다.

菓子業界도 例外는 아니어서 껌, 아이스크림을 始作으로 비스켙, 캔디, 캬라멜 등 거의 全品目이 輸入自由化가 됨으로서 業界로서는 커다란 衝擊을 주었던 것이다. 輸入自由化 措置가 發表됨으로 해서 그동안 過保護되어 왔던 國內 乳兒產業의 生產性向上과 技術開發에 轉換點이 되어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 向上과 消費者 保護라는 肯定的인 測面과 大幅的인 輸入增加로 國際放支의 惡化 및 아직 걸음마 段階인 國內產業에 打擊을 줌으로서 中小企業이 倒產 및 國家經濟의 成長에 沮害要因이 될 것이라는 否定的인 意見이 對立했던 것이다.

菓子業界에서 볼 때에 菓子類에 대한 輸入自由化 擴大措置는 國內業界가 처해 있는 狀況을 考慮한다면 時期的으로 이른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國內菓子業界는 깊지 않은 歷史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與件下에서 꾸준한 技術開發과 品質改善으로 良質의 製品을 生產하여 消費者에게 供給해 왔으나 外國製品과 比較해 볼 때 아직도 品質面에서 劣勢인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業界에서는 그동안 蓄積되어 온 潛在力을 바탕으로 하여 有數한 外國先進技術의 導入 및 原料의 高級化, 有能한 技術人力의 確保등 나름대로의 對策에 腐心하고 있으나 菓子業界의 成長勢 鈍化와 過剩施設投資로 인한 稼動率의 低下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企業經營이 어려운 狀況에 처해 있는 것이다.

政府는 輸入自由化를 實施하면서 業界의 衝擊을 最大한 防止하기 위하여 彈力的인 關稅運營, 輸入監視品目에 의한 物量調整등 補完措置를 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外國政府의 壓力(關稅率引下, 輸入監視해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事後管理的인 措置보다 根本的인 政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輸入自由化에 따른 改善點

(1)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率引下

菓子類에 使用되는 原料中 輸入原料의 比重은 매우 높다. 껌에 使用되는 치클類 및 香料 특히 초코렡原料인 코코아등의 關稅가 30% 이상의 高率關稅이므로 製品의 原價壓迫에 상

당한 要因이 되고 있다.

반면에 外國의 有名메이커들은 低廉한 價格으로 適期에 原料를 確保할 수 있으므로 해서 品質面에서 國內製品 보다 월등한 競爭力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原料에 대한 特消稅의 廢止

菓子生產에 必須不可缺한 原料인 설탕에 대하여 奢侈性 消費材로 看做되어 特別消費稅를 賦課함으로써 이를 原料로 使用하는 製品에 原價상승要因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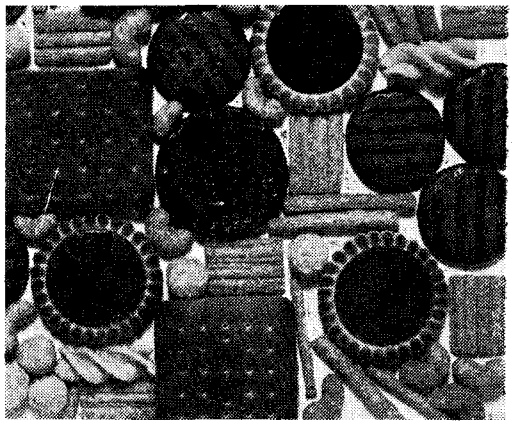
또한 輸入된 코코아빈을 加工하여 原料로 生產된 코코아매스의 特別消費稅(30%), 코코아파우더의 特別消費稅(40%)의 賦課는 國際競爭力 提高에 커다란 障碍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特別消費稅는 廢止되어 外國製品과 原價面에서 보다 自由로운 競爭力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輸入製品에 對한 高率關稅 및 輸入監視品目 擴大

現在 輸入自由化되어 있는 菓子類에 대하여 緊急關稅가 賦課되는 品目은 없으나 外國으로부터 꾸준한 關稅率 引下의 壓力을 받고 있는 時點에 비추어 向後 關稅率引下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만일 關稅率이 引下될 경우 外國製品이 輸入되어 國內製品과의 價格競爭面에서 對等한 위치 및 優位를 점하게 되면 이는 실로 業界에 致命的인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關稅運營에 있어서 보다 愼重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現 輸入自由化된 菓子類中 輸入監視品目으로는 쵸코렛이 指定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擴大運營하여 輸入物量을 政府에서 重點管理함으로서 彈力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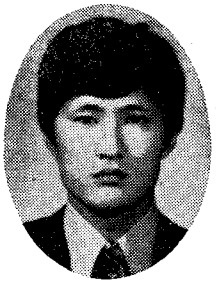
(4)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解止

企業은 自率的인 經營活動으로 製品의 高級化 및 계속적인 新製品 開發만이 더욱 치열해져 가는 國際競爭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이나 政府는 菓子類에 대한 輸入自由化를 斷行하면서도 껌, 아이스크림 등에 대하여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指定하여 外國製品과 競爭을 誘導하는 것은 自由競爭市場의 原理에 矛盾이 되는 것이다.

즉 市場支配的 事業者 品目으로 製品價格決定에 制約을 받게 되어 外國製品과의 價格競爭面에서 不利한 것이다. 그러므로 市場支配的事業者의 解止로 자유로 競爭질서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② 業界／마아가린, 쇼트닝

原料輸入関税率은 先進国水準으로



徐 聖 勳
〈서울食品工業(株) 常務〉

1. 머릿말

우리나라는 60年代의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비약적인 發展을 하여 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며 또한 賦存資源이 부족한 국가로서 貿易에 의존해야 한다는 當爲性은 접어 두고서라도 開放經濟로서의 資源配分 問題라든지 社會厚生增進 問題로서의 貿易의 自由化, 특히 輸入面에서의 自由化는 필연적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政府는 輸入自由化 豫示制와 더불어 今年 下半期부터 輸入自由化率을 대폭 증가시켜 보편화되어 가는 保護貿易障壁을 타개하기 위해 對外的인 설득력을 높이고 나아가 '86,'88 兩大 스포츠제전에 대비한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 배양을 主眼點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받아 들이고 싶다.

그러나 輸入自由化에 선행되는 問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1) 一次產品과 加工產品이 輸入됨으로 派生되는 幼稚產業 保護問題
(2) 消費材의 輸入制限 철폐로 인한 展示效果로 國內의 소비수준을 높여 奢侈風潮를 助長함으로써 貯蓄率의 저하 및 新投資의 위험성加重과 國民間 위화감 유발可能性
(3) 선진 제품과의 比較 劣位
(4) 國內 產業施設의 遊休化로 인한 雇用機會의 감소
(5) 國際收支의 惡化

물론 부수되는 모든 문제를 檢討하여 選定하고 순위를 정하였으리라 믿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모든 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 상태로 輸入이 開放되었을 때 많은 問題를 惹起시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아가린·쇼트닝 業界와 같이 원부재료의 輸入 依存度가 지극히 높고 製品의 品質多樣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現時點에서 加工製品 輸入自由化는 더욱 신중한 選擇的 立案節次가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食用油脂 產業은 國民所得의 向上과 더불어 需要量이 每年 급속히 增加趨勢에 있다. 그에 따라 業界는 꾸준히 不足한 施設을 늘려 왔으며 '88올림픽을 전후한 豫想需要에 對備, 莫大한 資金을 投入하여 현 市場規模 이상의 施設投資를 하여 需要量보다 供給量이 크게 上廻하고 있으며 부수하여 多額의 로얄티를 支給하면서까지 技術 導入을 서둘렀다. 그리고 每年 수십명의 海外硏修를 실시, 점차적으로 技術向上에 總力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初期 단계에서 加工食品의 輸入門戶開放은,

1. 現在에도 當社의 경우 가동율이 60% 水

準으로 국내의 작은 市場마저도 侵蝕당해 이미 投與된 施設材에 대한 投資回收가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2. 그 나마도 熾烈한 國內 業體間의 出血競爭으로 經營收支가 惡化 일로에 있으며
3. 특히 包裝材 產業의 零細性으로 包裝 技術의 落後와
4. 國內 油脂施設 自體도 先進國에 비해 落後된 상태이며 技術水準 또한 習得중에 있어 이것 역시 중단 또는 死藏化될 우려가 있다.
5. 그리고 原料 및 加工製品의 關稅率 差異가 先進國보다 크게 나고 있어 輸入開放時 市場開拓과 輸出 奬勵策으로 dumping 浸透 可能性마저 있어 상당한 問題點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輸入自由化에 따른 마아가린·쇼트닝 業界의 어려운 狀況에 따른 사후 보강책을 마련하여 業界가 輸入開放이 되더라도 充分히 競爭力을 갖고 對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原料에 대한 關稅率은 낮추어야 한다.

마아가린과 쇼트닝의 원료가 차지하는 比重은 80% 이상으로 國內 油脂原料 資源의 빈약함에 기인하여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 完製品의 輸入이 실현되었을 경우 先進國家 즉, 미국, 日本의 油脂原料 輸入關稅率이 대부분 無稅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 우리나라의 關稅는 表 2에서 보다시피 거의 12%~30%의 高率 關稅를 賦課하고 있어 關稅率差異로 인한 生產 cost의 競爭에서 부터 불리한 입장이다.

물론 그간 稅收確保면에서나 國內 資源保護의 面에서 실행되어 왔다고는 하나 現時點에서 이 稅率을 그대로 維持하고 完製品을 輸入開放하겠다는 政府의 의지에는 納得할 수 있는 論理性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完製品

表 1. 國內豫示 關稅率

〈단위 : %〉

品目 \ 年度		'84	'85	'86	'87	'88
原料	牛脂	12	12	10	10	10
	팜유	12	12	10	10	10
	야자유	25	25	20	20	20
	면실유	30	30	25	25	20
	豚脂	15	15	10	10	10
加工品	마아가린(쇼트닝)	40	35	30	25	20

表 2. 國別 關稅率

品目 \ 國別		韓國	日本	美國	臺灣
原料	牛脂	12%	無稅	$0.43/Lb	7.5%
	팜유	12%	無稅	無稅	7.5%
	야자유	25%	9%	無稅	20%
	면실유	30%	¥17/kg	$3/Lb	20%
	豚脂	15%	無稅	$3/Lb	7.5%
加工品	마아가린	40%	35%	—	45%
	쇼트닝	40%	25%	—	35%

의 輸入이 현실화되는 85年度의 稅率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完製品의 輸入稅率을 오히려 5% point나 引下시키면서 原料에 대한 稅率을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것은 政策上의 錯誤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表 1에서 加工製品의 關稅率은 每年 점차적으로 引下시키고 있는 반면 油脂原料 部門에는 加工製品의 引下率보다 현저히 낮은 率로 引下豫示되고 있다.

또한 原料 確保면에서 볼 때 規模가 비교적 零細한 우리나라의 產業環境으로 多國化 되어가는 國際企業과의 價格競爭면에서 優位를 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原料의 需給은 多元化되어 있고 豫測이 곤란한 國際穀物市場에서 形成되고 있는 만큼 情報의 制限性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先物市場의 效率的 活用 등 規模의 經濟로 운용되고 있는 그들과 原價競爭에서 그만큼 뒤지고 있다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에너지 cost가 다른 나라와 比較할 수 없을 정도의 高價인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稅制上의 支援은 필히 수반되어야 하며 그의 原料確保에 있어 金融的인 支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3. 原料輸入 制限品目도 開放시켜야 한다.

消費材 輸入의 增加에 따라 消費者의 嗜好역시 多樣化되어 간다. 같은 商品이라도 消費者의 嗜好에 따라 그 效用이 달라지게 된다. 이같이 消費者가 어느 特定商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選好하고 있는 商品에 대하여 더 높은 價格을 支拂하고서라도 그 商品을 持續的으로 消費하게 되어 있다. 商品의 差別化는 國內產業, 특히 마아가린·쇼트닝 業界에서 크게 부딪치는 問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油脂原料로 몇개 品目을 제외한 해바라기油, 菜種油, 옥수수油, 大豆油 등 대부분의 品目

이 國內農產物 保護側面에서 輸入制限을 받고 있다. 따라서 高價의 資源이며 더우기 物量 絕對不足인 原料를 國內에서 購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狀況에서 品質의 多樣化를 기하기란 사실상 難點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向後 完製品이 輸入되었을 때 輸入製品의 品質에 어떻게 對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國際 貿易이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때 이 機會에 比較劣位產業은 과감히 整理하여야 할 것이며 比較優位產業에 力點을 둘 必要性이 있다 하겠다. 向後 製品의 高級化를 追求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輸入自由化의 均衡을 위해서도 必要 部分에 한해 非關稅障壁도 開放시켜야 할 것이다.

4. 完製品은 輸入先 多邊化 品目으로 告示하고 調整關稅 및 緊急關稅 制度의 適用이 要求된다.

만약 完製品이 輸入開放되었을 때 必然的으로 輸入國은 先進國家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같은 輸入國의 偏在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業界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한한 輸入先의 選擇을 低開發國으로 限定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램이다. 이것은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하나의 方法論이 될 수 있으며 또한 完製品이 輸入될 때 問題點을 除去하기 위해 國內產業이 幼稚단계를 벗어 날 때까지는 暫定的으로 調整關稅制度를 適用 輸

入의 緩和를 기해 보는 것도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施設 現代化 支援을 强化하고 包裝材 産業 등 聯關産業의 連繫 育成이 시급하다.

따라서 輸入自由化가 國際經濟에서 對外貿易環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改善해 나가는 能動的인 對外開放戰略이며 生産者 中心의 獨寡占 品目을 開放시켜 外國 製品과의 競爭을 유도함으로써 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消費者를 保護해야 한다는 命題에는 異議를 提起할 수 없을 줄 아나 그것이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한 論理的 근거라면 逆으로 이것이 과연 生産者 側面에서의 環境改善努力 不足과 利潤追求만 指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것은 疑問이다. 현재 業界에서도 不斷히 輸入開放政策과 더불어 對外的인 競爭力 强化를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이것이 成熟되는 '88年이후로 調整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輸入開放政策이 여려 여건상 어쩔 수 없는 狀況이라면 이러한 輸入自由化의 물결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生産者는 生産者대로 消費者는 消費者 나름대로 또한 政策立案者는 政策立案者대로 輸入自由化가 미치는 衝激을 서로 合心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方向을 적극 模索하여야 할 것이다.

政策次元의 原料需給対策이 必要

安 泰 郁
〈第一製糖(株) 企劃室長〉

1. 國內 肉加工事業 現況

우리나라 肉加工事業이 最初로 시작된 것은 1950年代 末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肉加工製品은 魚肉加工製品이 대부분이었으며 本格的인 畜肉製品이 生産된 것은 食生活이 高級化되기 시작한 '80年代부터이기 때문에 國內 肉加工事業은 그 歷史가 짧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國內 肉加工業體 數는 8個 業體이며 그중 4個業體에서 畜肉製品을 本格的으로 生産하고 있고 나머지 業體는 아직 混合소세지 위주의 生産을 면치 못하고 있다.

畜肉製品을 生産하는 業體의 總 生産能力은 연간 18,000톤으로 畜肉製品의 '83年 市場規模인 6,000톤에 비하면 稼動率은 33% 水準에 머물고 있다. '83年 현재 畜肉製品과 混合製品의 市場比率은 2 : 8(物量基準)로 점차 畜肉製品의 需要가 擴大되어 가는 추세이다.

지난 80年 이후 國內 肉加工 市場은 每年

30% 이상의 伸張을 거듭하여 '83年에는 540億원 市場規模로 成長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食生活의 西歐化, 간편화에 따른 Fast-Food産業의 급격한 성장과 아울러 '86年, '88年 올림픽을 전후하여 안정궤도에 올라서면서 市場規模는 약 1,700億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現在 肉加工業界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 總原價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原料豚의 需給이 不安定하고 價格 또한 30~32個月 週期로 騰落하고 있어 安定的 原材料 調達이 問題가 되고 있다.

또한 肉加工業의 歷史가 짧은 만큼 技術人力이 不足하여 人力需給에 隘路를 겪고 있으며 技術 역시 先進國 水準에 未達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國內 市場規模가 적어 多品種, 小量生産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로 인해 生産性이 낮아 自動化가 미흡하다는 點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肉加工製品의 輸入自由化와 그 影響

政府는 先進國의 韓國商品 輸入規制措置와 對韓 輸入開放 要求에 對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培養, 輸出增大를 꾀하기 위해 '82年부터 輸入自由化 政策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3月에는

햄을 비롯한 肉加工製品도 '86年부터 輸入自由化 品目으로 예시되었다(表 1).

이러한 輸入自由化 措置에 따라 肉加工製品의 輸入은 可能하지만 肉加工製品 特性上 一部 製品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一般 眞空包裝의 햄, 베이콘, 소세지 제품은 현재 國內 畜産物 加工處理法上의 保存期間 問題(제조일로부터 30日 이내이며 輸入通關時 檢疫에만 15日 所要되므로 通關後 15日 이내에 全量 流通消費시켜야 함), 運送 및 保管問題(國內 Cold Chain System의 未備), 期間 經過品 處理問題 등으로 事實上 輸入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CAN製品의 경우 保存期間이 2年이나 되고 流通에도 Cold Chain System이 불필

(表-1)

CCCN	品名	관세율 (%)						備考
		'83	'84	'85	'86	'87	'88	
0206-0101 0102	햄 베이컨	40	40	40	35	35	30	'86년 이후 수입부과금 부과조건부 수입자동승인품목.
1601-0100	소세지	50	40	40	35	35	30	
1602-0101 0102 0103 0104	통조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고기)	40	40	35	35	35	30	

(表-2)

項　　目	國　　內　　製　　品	美　國　產　製　品
品　　質	○ 多品種 · 多單量 · 小性產으로 生產性 低下	○ 單一品種 생산전문화로 生產性 高 ○ 다양한 Diet 지향제품생산(고단백 · 저칼로리 식품)
原料需給	○ 代替원재료 사용한계 및 원재료 수급 불안정 및 가격의 불안정 ○ 원료豚價高(미국의 2배 정도)	○ 원재료 수급안정 및 代替원재료 사용 ○ 원료豚價 低
包 裝 材	○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수입관세 30%	○ 자급자족
稼 動 率	○ 성 · 비수기間 가동율 격차 큼 (즉, 고정비 부담이 큼)	○ 생필품으로 가동율 평준화 (고정비 부담 낮음)
販賣體制	○ 유통 Cold Chain 미비로 반품 폐기율 높음	○ Cold Chain System 완비
其　　他	○ 수요 개발 비용 부담 큼	○ 生必品化

요하여 日本의 경우도 輸入 市販되고 있는 製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點을 감안할 때 輸入이 가장 有力視된다. 이러한 輸入 CAN製品의 種類는 Corned Beef, Ham, Luncheon Meat, Chicken Sausage, Frank Sausage, Vienna Sausage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輸入 可能性있는 品目으로는 Dry Sausage를 들 수 있다. 이 製品은 保存期間이 2～3個月 정도로 一般製品보다 길지만 아직 國內 需要層이 엷어 生產業體가 없다.

수입예상국으로는 國內 暗市場을 통해 Brand Image가 확보되어 있는 美國產이 가장 有力하다. 日本은 近距離로서의 利點을 안고 있지만 日本 自體도 肉加工 輸入國에 속하고 商品力이나 原價面에서 큰 强點이 없으므로 輸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產 製品은 價格 競爭力은 상당하나 美國產에 비해 Brand Image가 낮은 점에서 美國產보다 輸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國內 肉加工製品과 美國產 製品을 比較해 보면 表 2와 같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內 製品은 輸入品에 비해 根本的으로 競爭力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國內 肉加工業의 原料인 돼지價格이 美國의 2배('80～83年 平均時勢 基準)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원료측면에서 부터 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肉加工品은 生必品으로 地域別, 工場別로 製品을 大量生產하는 반면 國內業體는 多品種, 小量生產으로 生產性 差異로 인한 고정비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아직 국내시장 기반이 미약함으로써 消費者 의식제고와 시장기반 확충을 위해 業體는 많은 需要開發 費用을 投入하고 있어 原價 加重의 한 要因이 되고 있으며 肉加工 관련 包裝材의 대부분이 輸入되고 있고 輸入時 關稅 또한 30%의 高率이어서 原價面에서 不利한 立場이다. 또한 국내 流通上의 Cold Chain 未備로 인해 流通過程에서 變質 등 品質 問題點이 發生되어 返品되는 物量도 많아 이것 역시 경영상의 큰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肉加工製品의 輸入自由化는 消費者들의 外製選好思想과 더불어 이제 市場 導

入期에 있는 國內業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좁아진 市場에서 競爭은 더욱 치열해져 一部 業體는 淘汰되고 過當競爭은 마아케팅費用 增加 등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의 肉加工業이 萎縮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輸入自由化 영향으로 輸入自由化에 對備한 國內業界의 海外技術導入 및 技術提携가 活發해질 展望이고 이에 따라 品質向上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3. 輸入自由化에 따른 業界對策

이러한 불리한 與件속에서 우리나라 肉加工業이 계속 成長, 發展해 나가려면 業界自體로서는 우선 品質 및 技術力을 向上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先務라 하겠다.

그리고 獨自的인 製品開發과 多樣化로 潛在需要를 創出해 가야 한다. 즉, 輸入豫想 品目인 CAN製品의 多樣化 및 品質向上으로 市場基盤을 우선 구축하고 海外 技術提携 및 技術協力 强化, 技術硏修 등으로 基本的인 技術水準의 Levelup이 필요하다. 또한 持續的인 製品 多樣化로 新規需要를 계속 創出해 나가며 季節的 需要差異를 줄여 稼動率을 높여 가는 한편 原價節減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政府에서는 國內 畜產業의 育成이란 관점에서 輸入品에 대한 적절한 對應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輸入自由化는 국내 경쟁력이 강한 製品부터 단계적으로 實施하여 業界의 技術發展과 競爭力 强化를 誘導해야 한다.

둘째는 原料豚 需給을 安定시킬 수 있는 根本的 對策이 있어야 한다. 즉, 정확한 需要 및 供給豫測으로 原料輸入 調達 등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셋째, 製品의 輸入自由化 이전에 原料의 輸入自由化로 肉加工業界의 根本的인 强化를 위한 與件을 造成해야 한다.

넷째, 製造日字, 流通期間, 運送 및 保管條件 規制 등 輸入品에 대한 별도 표시 규격을 제정하여 非關稅障壁을 强化시켜야 한다.

參考로 日本의 輸入自由化의 例를 살펴보면 最初 輸入自由化 時期는 1971年 下半期로써 1964年 동경올림픽 이후 國內 食品產業이 도약단계가 끝난 時點이었다. 肉加工製品의 輸入自由化 이전에 原料에 대해 輸入自由化를 행하였으며 製品에 대해서도 品目別로 輸入을 自由化함으로써 業界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이후에 이루어졌다.

즉, 需要가 그다지 크지 않은 사라미소세지, 생햄, 숙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햄類 등 生產性이 낮거나 日本 國內에서 生產하는 것이 非效率的인 製品부터 단계적으로 輸入을 自由化하였다.

또한, 製品 輸入自由化 이전에 政府는 業界의 건의를 받아 들여 肉加工業體에 대한 稅制·金融上의 지원, 原料肉 輸入에 대한 外換割當制의 폐지를 통해 전면적인 原料肉 輸入自由化 등을 年次的으로 實施하였다.

현재 日本의 輸入現況은 高率關稅 政策으로 지속적인 輸入制限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輸入關稅率은 6~8%이며 原料肉의 輸入關稅는 0.9%이나 제품의 수입관세는 最高 25%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日本 流通業界에서 最終 消費者價格은 런천미트 캔製品(340gr기준)價格을 基準으로 日本產은 400엔이나 美國產은 1,000엔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價格 競爭力에서 原料肉의 價格差異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輸入賦課金을 策定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多方面에 걸친 노력으로 政府에서 의도하는 國際競爭力 强化가 이루어지고 品質 向上이 達成되도록 業界와 政府가 다함께 努力해야겠다.

② 業界／마요네즈, 도마도케첩

原料묶어 놓은 製品開放은 矛盾

元 龍 南
〈오뚜기食品(株) 常務〉

1. 마요네스, 도마도케첩의 國內 製造業界의 現況

1970年代初 오뚜기食品(株)에 의해 처음으로 生産되어 오늘의 市場規模에 이른 마요네스와 도마도케첩은 開發初期부터 競爭은 國産이 아닌 外製 Brand였다.

당시 마요네스와 케첩의 利用者는 極少數에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거의가 美軍 PX에서 流出되는 外製 또는 소위 black market에서 販賣되는 外製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製品을 開發하여 國産化 시킨다는 것이 그리 容易한 問題가 아니였다. 처음부터 品質이나 맛이 世界的인 外製와 比較되었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이것이 마요네스와 케첩에서의 品質向上이 다른 加工食品에 비하여 比較的 빨리 이루어진 背景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우기 70年代 中半에 들어서 마요네스와 케첩의 市場이 다소 活氣를 띄게 되고 住居環境의 變化와 더불어 食生活패턴도 急激히 變化되어 이들 製品의 市場規模도 擴大되자 多數의 企業이 同製品의 生産에 參與하게 되어 현재 오뚜기食品을 비롯하여 5個業體가 이의 生産販賣에 임하고 있다. 偶然하게도 이들 5個業體는 마요네스와 도마도케첩을 동시에 取扱하고 있는데 이러한 現狀은 世界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마요네스로 有名한 日本의 QP가 케첩에 손대지 않고, 케첩의 名門 KAGOME 역시 마요네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美國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CRAFT와 CPC가 케첩을 만들지 않고 케첩의 名門 Heing Hunt가 마요네스를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趨勢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參與하는 5個 企業이 이들 두 製品을 다같이 만들고 있는 것은 特異한 現狀이라 할 수 있지만 아마도 先發企業에 影響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어느 한 先發業體의 主從製品이 다소 빛을 보는듯 하면 長期的인 事業計劃이나 技術的 背景도 없이 競爭的으로 參與하여 專門性을 잃는 境遇가 許多한 國內의 實情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쨌던 마요네스와 케첩을 製造하는 會社는 各 100億 未滿의 市場을 놓고 5個 企業이 自由競爭을 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2個 業體程度가 追加될 展望이고 보면 이 部門에 獨寡占이라던가 政府의 過剩保護 등의 用語가 애당초 適用되지 않는 領域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들 業體들의 企業規模 역시 아직 市場의 狹少性 때문에 中小企業的 規模에 머무르고 있으나 最近 2~3年間에 걸쳐 最新機械設備를 完備하였고 비교적 健全한 企業經營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製造技術部門에 있어서도 個別 企業마다 다소의 差異는 있겠지만 70年代 末부터 技術을 導入하고 硏究所를 設立하는 등 이 分野에의 投資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오뚜기食品의 境遇 예를 들면 79年부터 85年 현재까지 6年間에 걸쳐 마요네스와 도마도케첩의 先進技術과 經驗을 導入, 消化시켜 왔고 83年度에는 대규모의 硏究所를 設立하는 등 R&D 部門에도 意慾的으로 投資를 하여 왔다. 따라서 技術水準面에서 볼 때도 美國, 日本 등 有名會社 水準에 이미 到達한 企業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보이지 않게 開放經濟體制에 대한 準備를 하여온 것이 事實이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輸入自由化는 加工食品 分野부터 始作되는 것이 通例이기 때문에 우리 業體로서는 그간 비장한 覺悟로 맛에서부터 容器에 이르기까지 先進化의 速度를 늦추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同業界가 加工食品의 輸入自由化, 특히 마요네스와 도마도케첩의 輸入自由化에 對備한 가장 劃期的인 作品이 便利하고 衛生的인 容器의 開發에 있다고 보여진다. 즉 世界的인 日本의 特許인 "EVAL"을 利用한 혁신적인 食品容器의 開發이 바로 그것이다.

2. 輸入自由化의 問題點

輸入自由化에 對備한 業界의 꾸준한 努力과 多方面의 準備가 進行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금년 봄에 發表된 政府의 輸入自由化 計劃은 同業界에 衝擊을 안겨 주었다.

對外 依存度가 높은 우리 經濟事情으로 보아 언제까지 保護體制下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수많은 財閥企業의 獨寡占品目을 제쳐 놓고 中小 item인 마요네스와 도마도케첩이 85년 7월 1일부터 輸入自由化된다는 事實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마요네스의 경우 主要 原副資材의 輸入이 開放되

지 아니한 狀態에서 完製品의 輸入自由化가 先行된다는 政策的 背景이 무엇인지 理解되지 않는다.

不幸하게도 우리는 資源이 없는 나라로 主要 原副資材를 海外에서 調達할 수 밖에 없는 立場에 있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어떻게 完製品을 原料에 우선해서 自由化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業界의 對策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加工食品의 輸入自由化 計劃을 보면 年度別 輸入豫示品目의 順序가 마치 中小企業品目부터 始作된 듯한 느낌마저 들 수 있을 것 같다.

더우기 輸入自由化 計劃과 함께 關稅率도 大幅 下向調整되어 지금까지 業界가 心血을 기울여 講究한 對策으로서는 市場防禦가 매우 어려운 形便이라 생각된다.

도마도케첩의 境遇는 問題가 根本的으로 다른 角度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이미 輸入自由化率이 95% 水準을 超過한 日本도 아직 도마도케첩은 輸入制限品目이다. 이 점은 매우 重要한 問題로 생각된다.

만일 우리나라가 도마도케첩을 輸入自由化한다면 영원히 加工用 도마도의 栽培는 實現될 수 없으며 이는 向後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急激히 늘어날 도마도加工品은 완

전히 外國에서 輸入할 것을 勸奬하는 일이 된다.

所得水準이 向上될 때 도마도加工品의 需要는 多樣하게 늘어난다. 도마도 쥬스를 비롯하여 도마도케첩 各種 소오스類(우스타, 스테익크)는 거의 必須品化될 것이다. 이중에서도 도마도케첩의 輸入自由化는 가장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된다. 왜냐 하면 도마도의 原料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 業界에서는 이러한 觀點에서 加工用 도마도의 栽培技術까지 導入하여 지금 試驗栽培하고 있으며 어느 程度 成功的인 段階에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마도케첩의 輸入自由化는 業界에 미치는 影響 以前의 問題로서 愼重을 期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요네스와 케첩의 輸入自由化에 대해서 우리 業界가 念慮하는 問題가 또 하나 있다. 지나친 外製選好風潮의 만연,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眞實로 두려워하는 것은 外國商品이 아닌 우리 消費風潮 즉 外製選好思想이다.

바로 몇일전의 일이다. 世界的으로 權威있는 專門調査機關에 依賴하여 마요네스 使用에 관한 調査報告書를 받아보았는데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난 問題가 바로 이 問題다. 國內商標와 外國商標 두가지를 內容物만 담아서 試食 Test를 한 결과 國產이 좋다고 壓倒的으로 支持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의 머리속엔 外製가 좋다는 思想이 觀念化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外製 Brand를 選擇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輸入自由化 政策에 대한 몇 가지 提案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마요네스와 도마도케첩을 85년 7월 1일부터 輸入開放하는 데는 큰 無理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요네스의 輸入自由化 時期는 主要 原料인 植物性기름과 때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原料에 앞서 開放하는 것은 業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輸入自由化 計劃에 corn oil이 明示되지 아니하였는데 corn oil 역시 原料用으로 輸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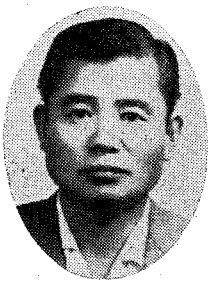
도마도케첩의 경우 國內에서의 加工用 도마도栽培가 이미 始作되었고 이에 대한 硏究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데 반하여 完製品의 輸入이 自由化된다면 原料의 栽培는 永遠히 拋棄하는 重大한 問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階層의 外製選好 風潮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外製商標에 대한 지나친 廣告活動도 制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輸入品과 國產品의 比較品評會 등을 열어 消費者들에게 國產品의 優秀함을 啓蒙토록 하는 한편 業界는 消費者의 信賴回復에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食品加工業에 있어서의 品質은 技術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消費者를 생각하는 良心과 經營哲學이 品質을 決定하는 보다 重要한 要因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 속히 우리 國產을 使用하는 것을 프라이드로 생각할 수 있는 消費風潮가 이룩되길 바라는 것이다.

③ 協　會

輸入自由化 現況과 向後對策



金　永　漢
〈韓國食品工業協會 次長〉

1. 食品 輸入自由化의 槪況

'83年 下半期 本會는 政府의 要請에 따라 초콜렛, 주우스 등 食品 輸入自由化 豫示 時點을 豫示 第3段階까지 猶豫해 줄 것을 要請한 바 있었으나 今般 同政策은 要請 豫示期間보다 2年이나 短縮實行되어 食品分野 뿐만 아니라 國內 有關產業團體와 뜻있는 人士들의 憂慮가 날로 增大되어 가는 實情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主管部署에서는 輸入自由化를 漸進的, 段階的으로 施行키 위해 關係部處와 有關團體 및 一線企業을 總網羅해 輸入自由化 豫示를 위한 幅넓은 意見을 照會한 바 있고, 業界의 意見을 政策運營에 잘 反映해 줄 것을 期待했던 것이나, 이러한 期待와는 달리 '84年 下半期를 期해 輸入自由化 政策은 早期 施行된 것이다. 따라서 輸入自由化 政策轉換의 結果는 業界의 意見이 疎外된 感이 있고, 이에 대한 向後의 根本對策樹立이 그 어느 때보다 時急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食品產業은 餘他 產業에 비해 食品加工 基礎素材의 貧困과 政策的 無關心 속에서 生產與件이 成熟되지 못해 發展速度가 느렸고, 對外競爭力에 있어서도 劣勢를 免치 못한 狀態에서 發展沮害의 對內外的 要因이 山積해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輸入自由化된 品目은 40餘種에 達한다.

'84年 下半期부터 輸入自由化 對象이 된 食品은 커피, 菜種油,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 초콜렛, 초콜렛菓子, 乳酸菌飮料, 오렌지주우스, 混合주우스 등이 1次的으로 輸入自由化品目으로 轉換되었고, '85年度에는 綿實油, 쇼트닝油, 마아가린 및 其他의 食用油脂, 粗糖, 精糖, 加糖코코아, 코코아含有 調製食料品, 醬類,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사이다, 釀造食醋等이 年次로 輸入開放될 計劃이고, 豫示第3段階인 '86年度에는 肉加工品인 햄, 베이컨, 소시지, 大豆油, 茶類, 토마토소오스, 인스탄트커리, 소오스 및 混合調味料까지 包含되어 있어 加工食品의 市場競爭은 치열할 것이 豫見되어 向後 政策的 側面에서의 그 補完對策이 絕實히 要望되고 있다.

食品產業의 過去를 回考컨대 業界는 스스로의 發展을 摸索하기 위해 輸入 原副資材중 國內 非生產品과 供給不足 原料에 대한 輸入開放과 輸入關稅率의 減免, 酪農關聯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制의 改善 등 發展沮害要因 解消를 위해 關聯業界의 意見을 收斂, 關係當局에의 建議 등 꾸준한 努力을 繼續해 왔으나 今般 食品의 輸入自由化 結果는 그 先後가 轉倒돼 있어 國內 食品產業의 將來가 매우 憂慮됨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2. 輸入自由化에 따른 向後對策

(1) 對外競爭力 構築上의 諸問題點 解消策

今般 輸入開放된 食品의 原副資材는 거의 輸入依存度가 높고, 製品에 사용되는 原料의 構成比重이 높아 國產化 比率이 낮은 品目으로서 製品生產과 販賣에 있어 導入食品에 비해 製造上 脆弱點을 內包하고 있는 品目들이다.

예를 들면 커피, 초콜렛, 마아가린, 쇼트닝, 토마토케첩 등의 農畜產物은 國內에서 栽培 또는 生產할 수 없는 品目이고, 栽培地域에 따라 氣候風土의 影響力을 받아 品質에도 起伏이 極甚한 品目으로서 對外的으로 原料自體의 競爭力이 劣勢에 놓여 있었지만 業界에서는 그나마 國際競爭力을 培養키 위해 莫大한 施設投資와 技術蓄積으로 內需用 需給에는 아무런 不便없이 操業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對內的으로는 奢侈性 物品으로 看做되어 特別消費稅를 賦課하므로서 항상 消費者들에게는 不利한 購買條件으로 供給되어 온 것이 現實이고 보면 무엇인가 此際에 改善하지 않으면 아니될 課題로 남아 있어, 國內產業에 대한 細心한 政策的 配慮가 있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또한 초콜렛製品을 비롯한 菓子類와 飮料部門에 乳製品인 乳糖이 使用되고 있으나 이 또한 國內生產은 全無한 實情이고, '80年 以來 줄곧 輸入監視品目으로 指定되어 物量確保와 新規需要業所에는 物量供給을 制限하고 있어 食品製造業界에는 큰 不便의 要素가 되어 있는 바, 製品生產을 원활히 하고 食品產業의 國際化 및 先進化를 指向하기 위해 原料需給의 政策運營에 보다 現實的이고 果敢한 政策構想을 展開해야 할 時點이 되었음을 强調하는 바이다.

乳酸菌飮料와 오렌지주우스, 混合주우스 등도 主原料인 脫脂粉乳와 감귤이 國內에서 一部가 부분적으로 栽培 또는 生產되고 있기는 하나 海外產品과 比較할 때 物量, 價格構造, 品種 및 品質에 問題가 많아 多樣한 飮料製品의 開發은 물론 消費者의 嗜好創出과 經濟事情에 適合한 製品을 生產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不拘하고 完製食品의 早期 輸入自由化가 實行되어 外製 選好 등 國民意識構造에 많은 問題點을 惹起치 않을가 걱정이 되는 바 크다.

'85年度에 輸入開放될 마아가린과 쇼트닝 등 食用油脂도 酪農後進性을 脫皮치 못한 國內의 產業實情을 감안할 때 그 基礎素材인 牛脂, 라아드, 魚油 등의 動物性 原料와 팜油, 椰子油, 綿實油, 옥배유 등의 植物性 原料는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어 源泉的인 面에서 完製輸入品과의 競爭相對가 되지 못하고, 調味料인 醬類는 우리 國民의 食生活營爲에 있어 食習慣上 生活必須品目이나 그 原料인 大豆의 供給이 充分하지 못하여 그 一部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競爭 相對國으로부터 醬類가 輸入될 경우 國民의 消費傾向이 果然 어떤 方向으로 誘導될는지 疑心치 않을 수 없고, 토마토케첩 역시 그 原料인 토마토페이스트의 輸入으로 國內 數個業體에서 적은 物量을 生產販賣하고 있는 實情이지만 完製品의 輸入開放으로 當該產業이 存續될 수 있을 것인지 再考의 必要性이 要望된다.

家庭用 食用油로는 唯一하게 大豆油가 消費者의 脚光을 받아 온 品目이나 이 또한 輸入自由化 豫示 第3段階인 '86年度에 開放될 計劃인 바 畜產業育成과도 關係가 깊은 製品이고 보면 完製品이 輸入되어 市場에 流通될 때 國產食用油의 消費物量은 激減될 것이고, 이와 關聯이 깊은 飼料對策이 講究될 수 있을 것인지 複合的으로 派及될 影響力을 生覺하지 않을 수 없다.

설탕은 食品工業에서 必須不可缺한 品目으로서 國民 食生活營爲에 있어 生活必須品化되어 있고, 間接的으로는 菓子, 飮料, 빵 등 加工食品全般에 用途가 多樣하여 暫時도 生活周邊에서 멀리 할 수 없는 食品이지만 아직도 奢侈性 消費材로 看做되어 高率의 特別消費稅

가 賦課되므로서 當該品目은 물론 關聯製品의 原價 壓迫要因이 되고 있는 바, 向後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해 基礎素材에 對한 政策補完이 緊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 食品 輸入自由化로 因한 問題點 考慮

오늘날 政治, 經濟, 文化 및 社會의 發展樣狀이 國際化 趨勢로의 變遷에 따라 우리 사회의 各 分野도 多樣化, 現實化를 指向해 나가고 있다. 더우기 消費性 物品인 食品의 輸入開放에 따라 社會 底邊에서 惹起될 수 있는 浪費風潮의 澎湃와 物質萬能意識의 高潮等 流通經濟上의 問題點은 産業 및 經濟領域 全般에 까지 깊숙히 浸透될 것이 豫想되는 바, 消費者는 無意識的으로 輸入食品을 選好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國內産業은 날이 갈수록 衰退一路에 빠질 憂慮가 있으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國民의 主體意識 涵養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에서는 輸入商品의 使用을 抑制하여 外貨를 節約하기 위해 國産品 愛護를 汎國民的 次元에서 啓導하며, 近來에는 奢侈性 및 浪費風土를 刷新하기 위해 享樂業種을 積極 規制하고 있는 此際에 다른 한편에서는 消費性 物品인 食品의 輸入開放을 制度化함은 根本施策의 二元化라 아닐 할 수 없는 바, 더 愼重한 政策構想이 要望되는 바이다.

(3) 向後의 根本對策 講究

위에서 列擧한 바와 같이 '84年 上半期를 分岐點으로 海外食品이 國內 市場에 進出하게 되므로서 向後 國內의 消費風土는 아무도 豫測할 수 없을 만큼 急變할 素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食品의 過剩輸入으로 貿易赤字를 加速化시킬 수도 있겠고, 國內産業에의 致命傷을 加하게 될 危險마저 排除할 수 없을 것임을 감안할 때 食品分野만이 苦心할 일이 아니라 大局的인 見地에서 온 國民이 覺醒하여 輸入食品의 汎濫을 沮止할 수 있는 方案을 事前에 摸索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關聯産業界에서는 良質의 原料를 低廉한 價格으로 導入하여 製品의 原價節減에 力點을 두고 製品의 品質面에서 輸入食品을 凌駕할 수 있는 新製品의 開發과 品質向上에 倍前의 努力을 傾注해 海外食品의 導入을 沮止함과 동시 輸出을 增大시켜 貿易均衡을 維持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政府는 産業背後에서 食品製造業界의 難題와 苦衷을 理解하고 優秀한 製品이 生産되어 導入食品과의 競爭이 可能하도록 現行 農政의 乖離된 部分을 改善하여 農業과 食品工業이 産業次元에서 共存할 수 있도록 産業用 原料의 輸入開放 및 輸入範圍의 擴大로 需給을 圓滑히 하고, 食品工業育成과 關聯된 梗塞된 諸般 制度의 再檢討等으로 産業發展 沮害要因 解消에 最善을 다해 對外 競爭與件 造成에 政策支援을 하는 한편 食品의 過剩輸入과 덤핑輸入을 制止하고, 輸入食品에 對한 食品衛生의 强化施策을 併行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消費者인 一般國民은 輸入食品에 眩惑되어 無條件 外産을 選好하지 말고, 愛國心을 發揮하여 國産品을 스스로 愛用할 줄 아는 良識을 昂揚해 나가는 것만이 國際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根本對策임을 闡明하는 바이다.

과학적인 미터단위 쓰기쉽고 알기쉽다.